

Morning Meeting Brief

Fixed Income

한은에서 온 비둘기 편지 2 통

- 2021년 한은 통화신용정책 운영방향을 통해 경제가 정상화 경로에 진입할 때까지 완화적 기조 이어가겠다는 통화당국 의지 재차 확인
- 금리 상승 압력은 여전히 높지만 통화당국의 완화적 기조 재확인, 시중금리 안정화 의지 확인되어 단기적으로 안정 시도 전망
- 높아진 금리 부담에도 금융시장 전반의 위험선호 확대를 반영한 크레딧 채권에 대한 선호는 추가로 이어질 수 있어 꾸준한 비중확대 제안

공동rak. dongrak.kong@daishin.com

산업 및 종목 분석

[Issue Comment] 조선/기계/건설: 할 말이 많아지는 연말, 연초

- [조선] 12/23 한국조선해양 LNG선 3척(6,122억원), 삼성중공업 LNG선 4척(8,150억원), 대우조선해양 LNG 추진 컨테이너선 6척(1조 836억원) 수주. 11월 이후 조선 4사의 수주는 114억불로 연간 수주량 210억불의 절반 이상을 차지
- [기계] 항공제조업이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후 장기 프로젝트는 일부 회복 추세. 한화시스템은 미국 위성통신 안테나사업을 하는 카이메타(Kymeta)의 지분 9.11%를 332억원에 인수 공시
- [건설] 대우건설은 모잠비크 LNG Area1 공사 계약 체결을 공시. 뛰어난 LNG 프로젝트 경쟁력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

이동현. dongheon.lee@daishin.com

한은에서 온 비둘기 편지 2통

경제 정상화 확인까지 여전히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

- 텍스트코로나19 충격에서 벗어나 경제가 정상화 경로에 진입할 때까지 완화적인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통화당국의 의지가 재차 확인됐다.
- 25일 한국은행은 '2021년 통화신용정책 운영방향' 을 통해 성장세 회복을 지원하고 물가상승률이 목표수준에서 안정될 수 있도록 완화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하루 앞인 24일에는 회사채·CP 매입 기구(SPV)에 대한 대출 실행 시한을 연장하고, 이어서 동 기구에 대한 제2회 대출 실시도 의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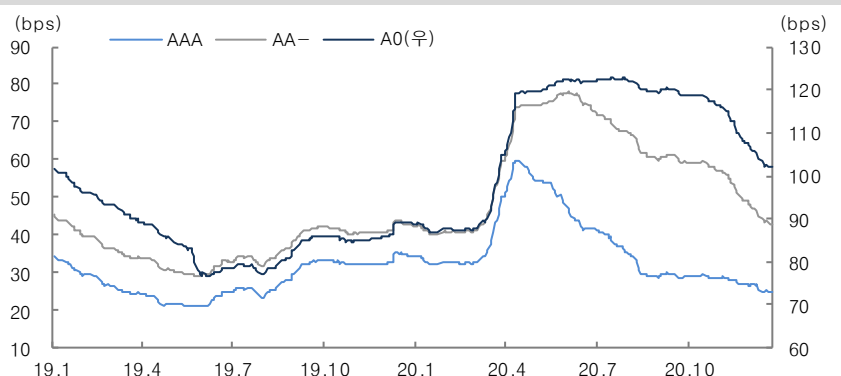
위험선호, 금융불균형 등의 우려에도 성장 회복세 지원이 최우선

- 우리는 최근 금융·자산시장을 중심으로 형성되고 있는 위험선호 확대, 대출 증가 등에 대한 통화당국 차원의 진단이나 문제 인식의 수위를 예의주시했다. 코로나 충격에서 벗어나기 위한 적극적인 통화완화의 결과로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들을 당국이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대한 관심이었다.
- 이에 한국은행은 내년 통화신용정책 운용 방향을 제시하는 과정에서 여전히 성장세 회복 지원이 현재 자신들이 직면한 최우선 과제임을 명확하게 했다. 아울러 그 방안으로 시장안정화 조치를 적기에 시행하겠다고 밝히는 한편 채권시장에 해당하는 사안들로 1) 국고채를 단순매입하고, 필요시 매입 시기와 규모를 사전에 공표하는 방안 검토 2) 회사채·CP 매입 기구(SPV)의 매입 기간 연장과 대출 실행 시한 연장 등을 발표했다.
- 한은의 이 같은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에 대한 재확인인 지난 12월 FOMC에서 연준의 행보와 거의 맥을 같이 한다. 당시 FOMC를 앞두고 금융시장에서는 증시 과열 등을 우려해 연준이 조기 테이퍼링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이 아니냐는 불안 심리가 상존했다. 하지만 연준은 자산매입에 대한 포워드 가이드를 종전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과 같이 현재 진행 중인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가 꾸준히 지속될 것임을 분명히 밝혔다.

물량 우려로 커진 금리 상승 부담, 단기적으로는 안정 시도 전망

- 현재 채권시장에서 국채 물량에 대한 부담은 크다. 재정 확대의 재원을 상당부분 국채로 조달하는 만큼 수급에 따른 금리의 상승 압력은 여전히 높다는 견해다. 하지만 통화당국의 완화적인 기조 재확인과 시중금리 안정화에 대한 의지가 확인된 만큼 단기적(1개월 전후) 시각에서 최근 가팔랐던 금리의 상승세는 제한될 것이라 판단이다.
- 아울러 높아진 금리 부담에도 금융시장 전반의 위험선호 확대를 반영한 크레딧 채권에 대한 선호는 추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견해다. 전략적인 관점에서 크레딧 채권에 대한 꾸준한 비중 확대를 제안한다.

한국 주요 신용등급별 크레딧 스프레드 추이(국고 3년 금리 대비)



자료: 민평3사,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조선/기계/건설 Issue Comment

; 할 말이 많아지는 연말, 연초

이동훈 dongheon.lee@daishin.com 이태환 taehwan.lee@daishin.com

2020. 12. 24

[조선] 조선 3사 하루 사이 13척 수주

- 12/23 한국조선해양 LNG선 3척(6,122억원), 삼성중공업 LNG선 4척(8,150억원), 대우조선해양 LNG 추진 컨테이너선 6척(1조 836억원) 수주
- 최근 3일 동안 LNG선은 한국조선해양이 9척, 삼성중공업이 8척 수주했으며 외신에 따르면 기다리던 모잠비크 프로젝트로 추정(Tradewinds), 총 4곳의 선주들이 시차를 두고 발주. 계약기간은 2024년까지 인도
- 대우조선해양은 인수위향서(LOI)가 체결되었던 하팍로이드 컨테이너선 6척을 수주. LNG 추진 컨테이너선이며 척당 선가는 164백만불. 대형 컨테이너선의 한국 점유율은 36% 수준이며 친환경 선박으로 점유율 상승 가능
- 조선사 상선부문 수주 목표 대비 달성률은 한국조선해양 84%(목표 111억불 / 달성 104억불), 삼성중공업 85%(목표 64억불 / 달성 55억불, 나이지리아 봉가 프로젝트 제외), 대우조선해양 71%(목표 72억불 / 달성 52억불)로 당초 예상했던 60~70% 수준을 상회
- 한국조선해양의 조선사별 상선 수주 달성률은 현대중공업 84%(목표 53억불 / 달성 45억불), 삼호중공업 113%(목표 32억불 / 달성 36억불), 현대미포조선 90%(목표 26억불, 달성 23억불)
- 11월 이후 조선 4사의 수주는 114억불로 연간 수주량 210억불의 절반 이상을 차지
- 모잠비크 LNG선, 하팍로이드 컨테이너선을 변곡점으로 단기 신규수주는 Peak-Out 할 것으로 전망했으나 여전히 건조문의는 증가하고 있는 상황. 내년 상반기까지 긍정적인 발주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

[기계] 이어지는 방산업체 수주 소식, 한화시스템 미국 저궤도위성 안테나업체 투자

- 한국항공우주는 IAI G280(1,429억원), 에어버스 A350(7,176억원), 엠브라이어 E2(893억원) 등을 포함 최근 기계부품에서만 9,499억원을 수주. 항공제조업이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후 장기 프로젝트는 일부 회복 추세
- LIG넥스원은 KDDX 소나체계를 비롯 최근 국내 방산에서만 3,728억원 수주 공시. 공격 무기의 특성 상 공시 외 수주 물량이 많으며 2020년 연간 수주는 3조원 내외에 이를 것으로 전망
- 한화시스템은 미국 위성통신 안테나사업을 하는 카이메타(Kymeta)의 지분 9.11%를 332억원에 인수 공시. 저궤도 위성은 아마존, 스페이스X 등이 기지국이 없는 위성 인터넷 사업을 추진하는 프로젝트의 핵심. 한화시스템은 2020년 6월 관련 안테나 기술업체인 영국의 페이지솔루션 지분 100%를 인수한바 있음
- 이밖에 한화시스템은 333억원(220만주) 규모의 자사주 매입을 공시

[건설] 대우건설 모잠비크 LNG Area1 5천억원 수주 공시, 이라크 신항만 조성 2.9조원 수주 외신 보도

- 대우건설은 모잠비크 LNG Area1 공사 계약 체결을 공시. 지난 6월 2조원 규모의 나이지리아 LNG Train7 수주에 이어 뛰어난 LNG 프로젝트 경쟁력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
- 이외 대우건설은 이라크에서 2.9조원(2,625백만불)의 신항만 수주 공사를 수주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 이라크 수주는 수의계약으로 협의중이었으며 4분기 계약이 미정인 상황이었음

▶ Compliance Notice

- ✓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 Research Center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정확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 자료 작성일 현재 본 자료에 관련하여 위 애널리스트는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 ✓ 본 자료에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애널리스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였습니다.
- ✓ 동 자료는 기관투자가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